



이명 (귀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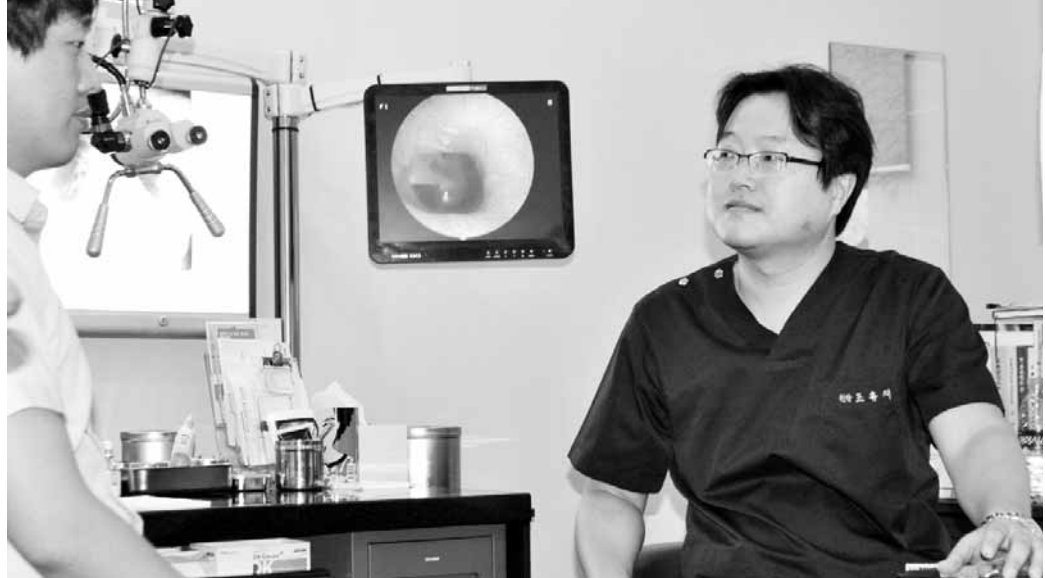
엔타이비인후과병원 조휴채 원장

귀에서 들리는 ‘삐~ 소리’ 불치병 아니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발달과 복잡한 사회생활, 약물의 오남용, 산업화로 인한 소음 증가, 스트레스 등으로 이명환자가 늘고 있다. 성인의 약 30% 정도가 이명을 경험하며, 5%는 이명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고, 1%는 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고 한다.

최근 이어폰과 핸드폰의 빈번한 사용으로 이명이 생기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명의 원인은 다양하고 대부분이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병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 이명재활치료를 통해 80%까지 완치가 가능하다.



조휴채 엔타이비인후과병원장이 귀울림으로 수년 동안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환자의 귀 내부를 진찰하고 있다.

◇이명이란?

외부로부터 소리의 자극이 없는데도 사람의 귀 혹은 머릿속에서 느끼게 되는 소리를 의미한다. 이명은 그 정도가 약할 때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나 심할 경우에는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이명은 하나의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그 자체가 질환은 아니다. 그 소리의 형태와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며 고주파수의 소음이 많으나 매미 우는 소리, 스텝이 새는 소리나 물 흐르는 소리도 흔하게 나타난다. 그 외에 종소리, 오펜스트라 소리, 망치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등의 불규칙적인 소리가 있다. 소리의 강도는 주변이 잠음에 묻힐 정도로 약할 수도 있으며, 하루 종일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강할 수도 있다. 이것은 개인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심지어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명은 왜 생기나?

이명은 ‘증상’이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명을 가진 사람의 일부에서는 난청을 동반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청력은 정상인 경우가 많다. 환자의 60%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가능한 원인으로서는 과로 및 스트레스, 돌발성 난청, 메니에르병, 소음성 난청, 머리 외상, 노인성 난청, 이독성 약물, 청신경 종양, 중이염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귀 주변을 지나가는 혈관에서 나는 소리, 귀와 목 주변 근육의 수축 혹은 경련에 의한 소리, 턱 관절 기능장애, 이관 기능장애 등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심신이 쇠약해지거나 중금속 오염 혹은 원기가 부족해서 생기는 전신적인 질환은 전혀 아니다. 이러한 근거없는 주장으로 인해 오히려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환자 60%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

과로·스트레스·소음성 난청 등 추정

청각 과민증·정서적 불안감 클면

전문의와 상의 ‘이명 재활치료’를

국내의 보고로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는 환자의 23명중 한명이 이명환자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명의 대처와 치료

실제 외부의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데 ‘소리’를 듣는 경우 뇌가 일종의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명이 있는 사람은 불안하고 화가 나 짜증을 내며, 어떤 일에 집중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개인의 성격·개성에 따라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되며, 이명을 불치병으로 인식하면 증상은 더욱 악화된다.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받고, 특별한 질환과 연관된 이명은 우선 그 질환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병력 청취와 함께 이명 설문지를 통해 질환의 심한 정도를 확인한 후에 청력 검사와 뇌진경 유발 검사 등을 통해 뇌질환과 청각 질환의 원인에 대해 알아야 한다. 특정 질환과 연관없는 대부분의 이명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이명에 대한 불편함의 정도와 전문치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판단을 받은 후, 적절한 치료로 선택돼야 한다.

이명의 치료는 과거 약물요법, 수술, 물리적 자극, 식이요법, 최면술, 바이오피드백, 긴장완화 및

명상, 척추 지압요법 등 수많은 방법들이 시행돼 왔으며 그 효과는 환자들마다 큰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고막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이 이명에 일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명 치료의 임상적인 경험과 청각신경생리학의 발전으로 이명의 치료는 개인적, 신체적, 심리적, 청각학적, 그리고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연구결과로 확립된 치료라 바로 이명재활치료다.

◇이명 재활치료란?

이명은 그 불편함이 소리 자체의 크기나 종류보다는 그 소리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인 반응 및 적응 정도에 따라 불편함이 없는 경우부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명 재활치료는 이명의 신경생리학적 모델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이명에 대한 습관과 과정을 유도하고 촉진한다. 기존의 이명 자체를 없애고자 하는 방법과는 달리, 이명에 관해 환자가 명확하게 알고 이명을 고통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중립적인 신호로 인식하게 한다. 대뇌의 단계에서 습관화를 유도하므로 주관적 이명의 말초적인 원인과 관계없이 치료가 적용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명재활치료가 필요하다. ▲약물 치료에도 효과가 없을 때 ▲이명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장애가 있을 때 ▲일에 집중할 수 없을 때 ▲이명에 대한 정서적인 불안감이 높을 때 ▲이명으로 인한 상실감이 클 때 ▲수면장애를 초래할 때 ▲청각 과민증이 있을 때에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명을 치료되지 않는 불치병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생각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의해 치료해야 한다.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몽골 주민 1000여명에 의료 나눔봉사

전남대 치과 의료 봉사팀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강병철)의 치과 의료봉사팀이 최근 6일간 몽골의 빈민지역인 알람볼락과 울란바타르 지역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김선미 교무부원장과 전남대 치전원 학생들, 치과 의사,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치과 의료봉사팀은 알람볼락의 보건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치치료, 발치와 스케일링, 의치 수정 등의 치과진료를 시행했다. 10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한 이번 봉사는 광주 겨자씨교회 의료봉사팀과 함께 진행했는데, 특히 전남대 치전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몽골 치과대학의 교수



와 학생이 함께 의료봉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전남대 치전원은 학생들이 을 들어 방학과 주말을 이용해 방글라데시, 미얀마, 광주외국인노동

자건강센터, 행복재활원 및 노인복지관, 함평·나주·순천 마을회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랑신고 취약계층 찾아가는 ‘치과이동버스’

조선대 치과병원 순회 봉사

조선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안종모)은 최근 광주시 동구 산수동 광명경로당을 찾아 진료봉사를 펼쳤다.

5명으로 구성된 진료봉사단(지도교수 손미경)은 이동치과진료버스를 이용해 산수2동에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치석제거, 보철 상담 및 틀니 사용 교육 등을 실시했다.

조선대치과병원은 광주지역 노인과 결손가정 아동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열악한 교통수단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효과적인 봉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이동치과버스를 이용해 한 달에 두

번씩 순회하면서 치과 진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병원 김권천 교수

‘유방학 교과서’ 3판 공저

조선대병원 외과 김권천 교수가 국내에서 유방암 및 유방 질환을 전공하는 약 90여명의 교수들과 함께 유방학 교과서 3판을 공저했다.

김 교수는 이번 저서에서 ‘유방암 유두상 병변의 진단 및 치료’와 ‘유방암 환자의 수술 후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저술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에도 갑상선 내분비외과학 교과서를 공저한 바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서광병원-금호지구대 ‘착한운전 마일리지’ 협약

광주 서광병원(이사장 서해현)과 서부경찰서 금호지구대(대장 천국배)는 최근 서광병원에서 법질서 정착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협약식(사진)을 갖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



다. 서광병원 전 임직원들은 서약기간 중 인명피해와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하기로 결의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비파괴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미화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사정상 “매매”

- ➔ 광주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1층 코너 25평
- ➔ 매 매 - 1억 5500만원(일시불 조건)
- ➔ 대출 - 7300만원(월 이자 35만원)
- ➔ 임대 - 보 3000만원에 월 125만원 현재 편의점 영업중
- ➔ 수입 - 5200만원 투자에 월 90만원
- ➔ 기타 - 차후 매매시 2억정도 예상

주인 직매 : 010-3605-5000